

KISTEP 통계 브리프 2007-1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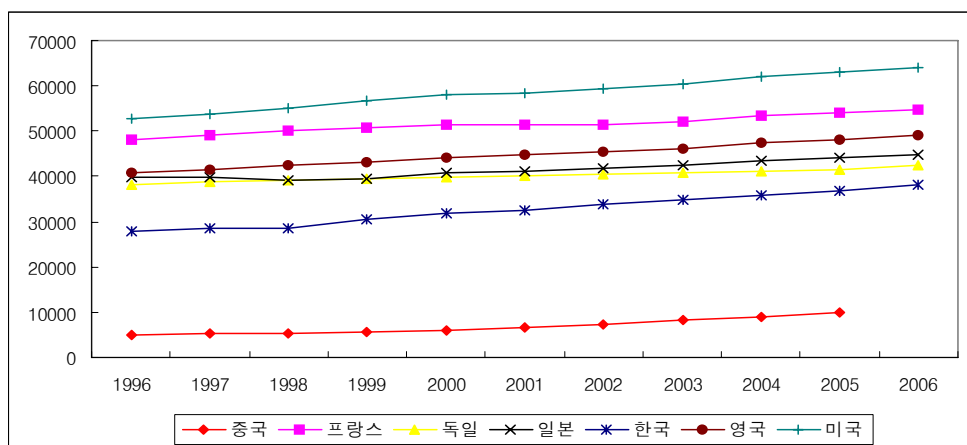
노동 생산성과 노동 효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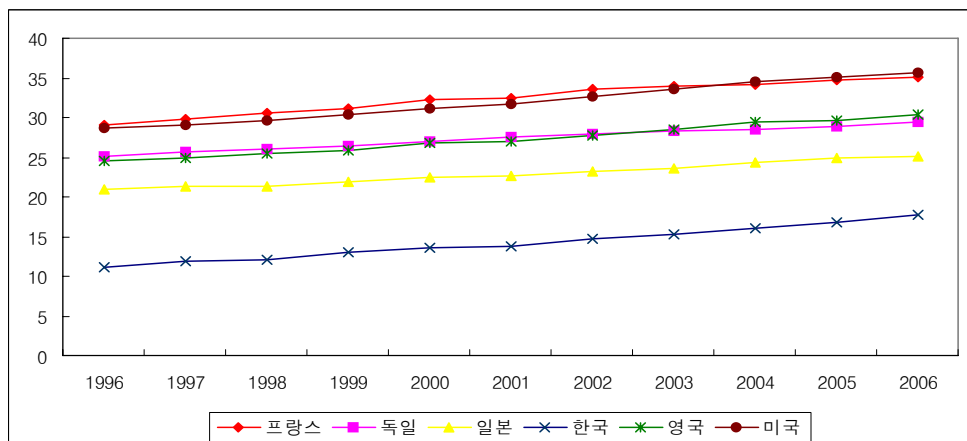
□ 노동 생산성

- 우리나라의 노동 인구 1인당 GDP는 2006년 기준 선진국의 약 60%~80%정도의 수준으로 노동력의 생산성이 떨어지나 연평균 증가율이 3.2%로 선진국에 비해 다소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중국은 우리의 1/3~1/4 수준이지만 연평균 증가율이 7.5% 정도로 생산성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선진국은 1~2%정도의 성장으로 후발국의 추격을 받고 있음. 또한 미국과 기타 선진국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 노동시간 효율성은 선진국의 40~50% 수준으로 선진국의 수준에 비해 많이 낮은 편
 - 연평균증가율(4.7%)이 선진국(미국 2.2%, 영국 2.1% 등)의 두배 이상으로 곧 추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그림 1> 노동인구 1인당 GDP 추이 (1990년 US\$)



<그림 2> 노동 시간 1시간당 GDP 추이 (1990년 US\$)



<표 1> 노동 생산성과 노동시간 생산성 (1990년 US\$)

국가	노동 생산성		노동시간 생산성	
	노동 1인당 GDP ('06)	연평균 증가율 ('96~'06)	노동 1시간당 GDP('06)	연평균 증가율 ('96~'06)
중국	9,817('05)	7.6%('96~'05)	-	-
프랑스	54,609	1.2%	35.08	1.9%
독일	42,345	1.1%	29.49	1.6%
일본	44,877	1.2%	25.16	1.8%
한국	38,075	3.2%	17.68	4.7%
영국	49,031	1.9%	30.42	2.1%
미국	63,885	2.0%	35.63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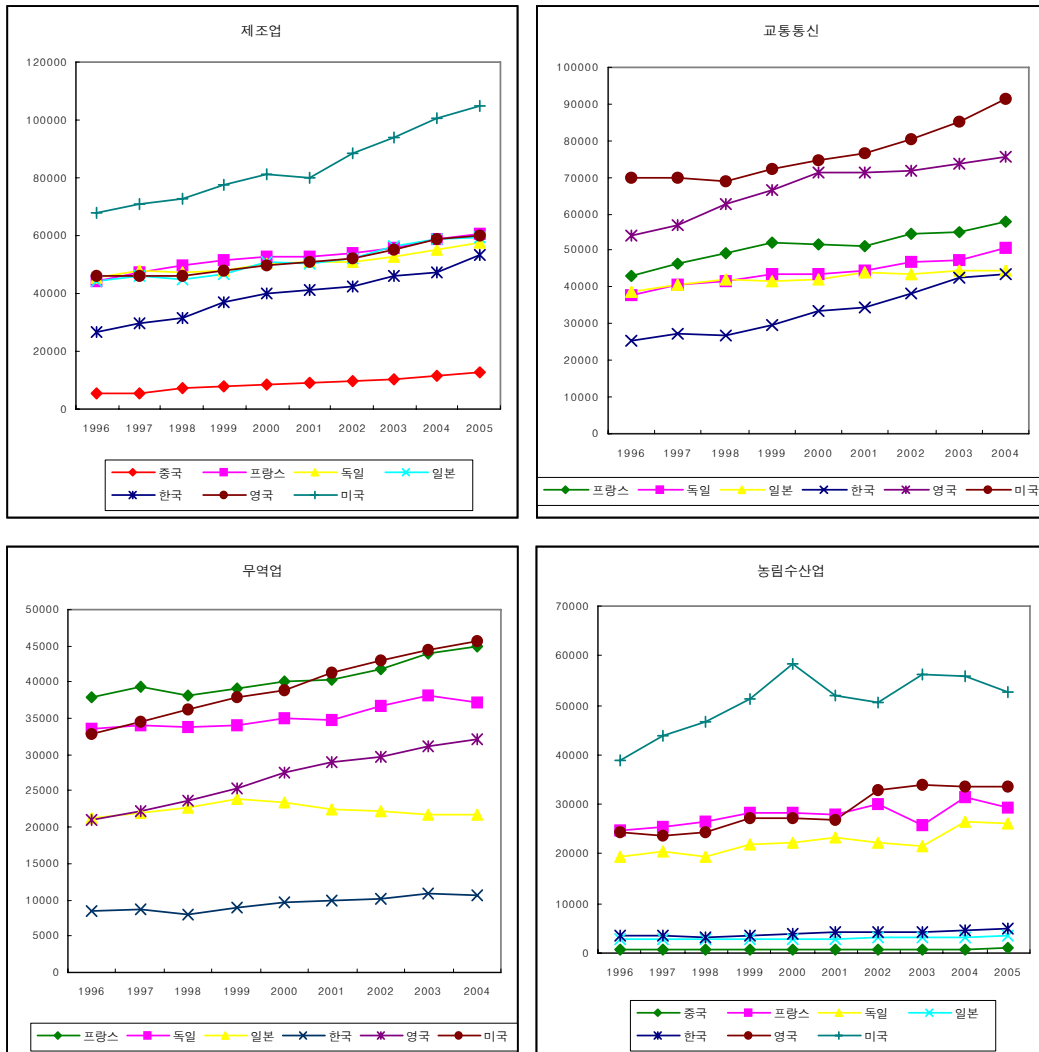
□ 산업별 노동 생산성

-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노동 생산성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였으나 농림수산업과 무역업의 노동 생산성은 선진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
 - 우리나라와 일본은 산업별로 노동 생산성의 차이가 큰 편이며 미국은 모든 분야의 노동 생산성이 전반적으로 높은 편임
-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였지만 제조업의 노동시간 효율성은 전체 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노동 효율성의 제고가 필요함
 - 우리나라의 1년 평균 노동시간은 1996년(2648시간)에 비하여 2006년(2305시간)에 대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선진국에 비하면 500시간이상 차이가 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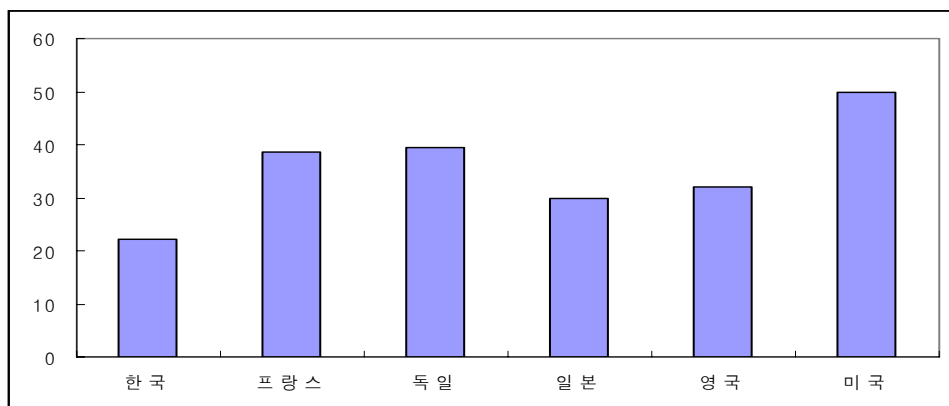
<표 4> 산업별 노동 인구 1인당 GDP (2005년, 단위 : 1997 US\$)

	한국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농림수산업	4,859	29,507	26,248	3,422	33,636	52,585
제조업	53,280	60,835	57,849	59,281	60,235	104,606
무역업	10,574	44,871	37,166	21,745	32,087	45,601
교통통신	43,403	57,895	50,792	44,707	75,627	91,5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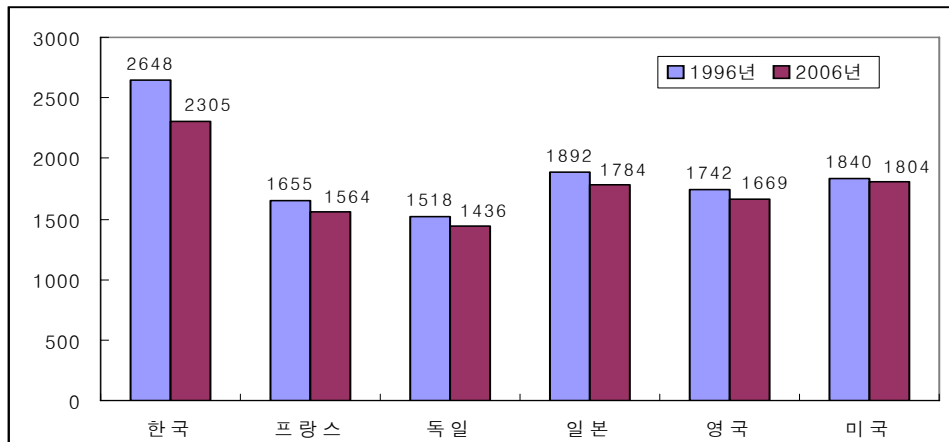
<그림 3> 산업별 노동 인구 1인당 GDP 추이 (단위 : 1997 US\$)



<그림 4> 제조업의 노동 시간 1시간당 GDP
(2005년, 단위 : 1997 US\$)



<그림 5> 주요국의 1년간 평균 노동 시간(1996,2006년)



□ 시사점

- 우리나라의 노동 생산성은 아직 선진국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다소 빠른 성장세로 수년내로 선진국 수준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우리나라 제조업의 생산성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였으나 다른 산업은 선진국의 절반수준에도 못 되는 등 산업별 노동 생산성의 격차가 큼
- 우리나라의 노동시간 효율성은 노동생산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선진국 수준보다 더욱 떨어지며 제조업에서조차도 다른 산업과 비슷한 추세
 - 긴 노동시간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져 효율성은 더욱 떨어지는 모습으로 노동시간 효율성의 제고로 생산성 향상은 물론 그에 뒤따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해야 함

* 자료원 : ILO, Key Indicators of the Labour Market 5th Edition

* 자료관련 문의 : 혁신지표팀 (02-589-2829, 2949, 2892)